

아베노믹스 2기의 일본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박차

‘주력인 자동차도 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닛산은 경영부진에 빠진 미쓰비시자동차에 34%를 출자 한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의 제휴 동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핵심 개발인력의 교류 확대, ② 신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해 자동운전이나 커넥티드카 개발 등 신기술 개발 부담을 상호 경감, ③ 경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④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구, ⑤ 환경대응차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 ⑥ 생산거점을 공유, ⑦ 플랫폼이나 부품의 공통화를 통해 개발·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2년 연속 2조엔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도요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고 향후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자동운전 등의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NGA는 부품의 공통화 외에 복수 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특히 자동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AI(인공지능)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샤프 대만회사에 인수, 르네사스도 관제 구조조정 추진’

샤프는 2015년 4-12월 결산에서 1,083억엔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대만기업인 홍하이에 인수되었다. 세계적인 액정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액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샤프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홍하이가 샤프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주무 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감독 관청인 경산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는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도시바는 원전과 반도체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백색가전, PC, 의료기기 사업분야를 매각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2016년도에는 종래의 백화점식 종합전기(電機) 메이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바는 주력인 에너지, 반도체, 사회인프라의 3개 부문을 각각 에너지시스템솔루션社, 스토리지&디바이스솔루션社, 인프라시스템솔루션社로, 또한 이들을 지원할 인터스트리얼 ICT솔루션社 등 4개 컴퍼니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냉장고 등 백색가전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중국기업(미데아)에 매각할 방침이다. PC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소니에 CMOS센서를 매각한 바 있으며, 채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타사와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캐논에 6,655억엔에 매각함으로써 동사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일 계획이다. 2017년 3월말 그룹의 종업원 수를 18만 3,000명으로 2015년 동월에 비해 3만 4,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5%에 미달하는 사업은 철수하거나 재편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히다치는 성장률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 저수익사업 분야에서의 철수뿐만 아니라 비핵심사업의 정리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히다치물류가 SG홀딩스에, 히다치캐피탈이 三菱UFJ파이낸셜 그룹에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것은 비핵심 사업분야의 정리 차원에서였다. 히다치의 CEO는 비핵심 부분의 정리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월간산업경제(2016년 중) 해외산업이슈 코너에 필자가 게재한 것들을 본고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저자_ 산업연구원 사공 목

일본 자동차 &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